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5년 6월 1일(일) 제1542호

6월 3일까지 한국교회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투표 결단, 매일 기도 참여, 투표 및 기도 홍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그리스도를 위해 투표합시다'(Vote for Christ)를 6월 3일(화)까지 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하자는 취지다.

'그리스도를 위해 투표합시다' 캠페인에는 웹페이지에 접속하면(QR 참고)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결단', '매일 기도 참여', '투표 및 기도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6월 3일까지 웹페이지에 올라오는 '투표를 위한 오늘의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공동체 식구, 지인, 가족 등에게 공유하면 된다. 현재까지 성도 13,293명이 '그리스도를 위해 투표합시다' 캠페인에 동참하고, 투표를 결단했다(5월 30일 기준).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지역별 지정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si.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한편, 온누리교회는 지난 5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를 '나라 사랑 금식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 지도자와 다음세대를 위해 금식기도 했다. 이 기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매일 오전 5시 30분 '새벽기도회'와 정오(오후 12시)에는 '정오기도회'를 했다.

/ 홍하영 기

법과 정의, 그 너머의 삶!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
6월 16일 오후 6시 45분 서빙고 본당

법조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부제: 법과 정의, 그 너머의 삶)가 6월 16일(월) 오후 6시 45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법조인들에게 진정한 정의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법과 정의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장(場)이다**〈관련기사 6면〉**.

법조인맞춤전도집회에서는 손범수, 진양혜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가스펠 보컬 밴드 크룩스, 가수 선예, 소프라노 강혜정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설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홍보부스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에 초대 대상자인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교수, 외국변호사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참가신청 3일 이내 접수 확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준다.

초대 대상자와 전도집회를 위해 기도하는 '요청자기도모임'을 6월 2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선교관 지하 1층)에서 한다. 중보기도회, 전도방법 교육, 집회준비 안내, 초대장 및 주차증 배부 등을 한다.

문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저스티스포유'

/ 홍하영 기자

2025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
6월 11~12일 각 캠퍼스 13일 양재 사랑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평강의 복'(시 29:11)을 주제로 6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매일 오전 10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6월 11일(수)과 12일(목)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집회 실황을 각 캠퍼스에 전송한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마리아들은 양재 사랑홀, 캠퍼스 마리아들은 소속 캠퍼스 본당에서 집회에 참가하면 된다. 13일(금)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모든 캠퍼스 마리아들이 모여 연합기도회를 한다.

2025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이훈 목사(길벗다문화센터),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가 메시지를 전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토요주일예배, 일요주일예배, 수요여성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간식, 물 포함). 6월 1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자들은 밝은색 상의와 짙은색 하의를 입고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문의: 02-3215-3667

도곡교육관 예배, 10월 말까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6월부터 숙명여고 강당 및 도곡교육관 레노베이션 공사 관계로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및 차세대예배를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드린다. 공사는 6월 1일부터 약 5개월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예배 시간 및 장소는 Q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2-570-7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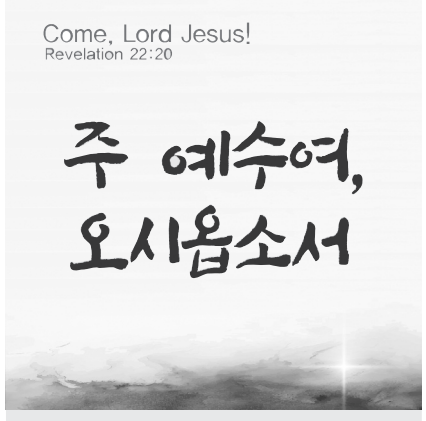
두 사람이 한 사람 보다 낫다!
7월 4~5일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전 4:9)를 주제로 7월 4일(금)과 5일(토) 일본 요코하마 사카에 공회당과 혼고다이 그리스도교회에서 열린다.

7월 4일 요코하마 사카에 공회당에서 'The Way 집회', 7월 5일 혼고다이 그리스도교회에서 'YUME Confernce'를 개최한다. The Way 관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 본부와 온누리대학청년부가 협찬한다. 이서진 목사, 사기사카 타이치 목사가 설교한다. 'YUME Confernce'에서는 패널토의, 소그룹 쉐어링, 레크리에이션, 팀 발표, 집회 등이 이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은 이메일(2myo0@naver.com)이나 전화(02-3215-3759)로 신청하면 된다.

/ 박지혜 기자

특별대담_ 국제 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가 그리는 미래 3면
어린이신문_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5면
전문가 기고_ 십자가 위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정의 6면



승리의 때가 오고 있다

요한계시록 18:20~24

**"하나님의 심판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찬송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진정한 할렐루야, 경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도성이 아닌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을 갈망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악으로 인해 상처 입고 고통 받는 성도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거룩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주어지고, 결국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5~16장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따르지 않고, 거짓을 끝까지 고집하고 사랑하는 이들은 단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계 16:5~7).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정확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했던 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함께 베풀어지는 심판이기에 의롭습니다.

셋째, 마지막 심판은 두 번째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이 함께 베풀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난 재앙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임했던 열 가지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미래에 있을 진정한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나타납니다. 구약 역사에서 물을 통과해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건짐을 받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왜 물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심판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내 머리에 있는 것은 '내가 수장되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서 다시 나올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 받을 대상과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나라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계 15:3~4).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18장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게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여 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계 17:1~2).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온갖 화려함으로 장식하고 손에는 가증스럽고 불결한 것으로 가득한 금잔이 있고, 이마에는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고, 어린양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공격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들이 순교로써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어린양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을 대적하는 이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계 17:14). "어린양이 그들을 이기셨고 또한 그를 따르는 이들도 그들을 이길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승리의 날, 승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창녀는 성적 타락의 이미지입니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성적 타락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단은 성을 이용해 인생에 대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사랑은 소중한 선물임에도 그것을 돈으로 사는 것으로 속입니다. 대인관계는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영적 도구인데, 그것을 탐욕의 도구로 바꿔버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음행 자체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고대부터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행과 관련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이 큰 창녀는 〈요한계시록〉 19장 이후 나오는 동정녀 신부와 대조됩니다. 17~18장에 큰 음녀가 나타나고, 19장부터 정결한 신부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모든 인간을 큰 창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큰 창녀는 짐승에게 이용당하고, 짐승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악은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죽일 뿐입니다. 철저히 속이고 이용하고 버립니다. 악과 타협하고 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악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악은 결코 질서를 세울 수 없고, 보존할 수 없고, 무너뜨리기만 할 뿐입니다. 결국 악은 자멸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 도성에서 나와라 그 도성을 즐거워하라!

당시에는 도시를 여성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성 바벨론을 '큰 창녀'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17장에서는 한 여인으로 비유했고, 18장에서는 큰 도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계 17:18).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비유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도 바벨론처럼 여러 도시에 타락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미지는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 도시들도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신을 신성시하는 극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세상 제국의 힘이 강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절정은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침범해서 약탈하고, 자신을 신성시하고, 더 나아가 지도자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고, 이 시대 역사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바벨론 같은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바벨론의 길을 걷는 나라와 도시는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이 큰 도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탄식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 무너졌다. 재앙이다"라는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가장 슬퍼하는 이들이 상인들로 나오는데, 당시 로마가 정치적으로만 착취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시를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탐닉에 빠지게 하고, 돈으로 인생의 의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입니다. 곧 큰 창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로마도 무너질 것이고, 이 시대 바벨론도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한 만큼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른 이들에게 행한 것에 두 배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행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그 도성에서 나와야 합니다(계 18:4). 바벨론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순교의 각오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로부터, 쾌락주의로부터, 허무주의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이념들로부터,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거대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개가 사라지듯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도성이 있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계 18:20). 세상의 도성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하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나타납니다. 큰 창녀인 바벨론과 대조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도 결코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신을 사랑할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도성으로 즐거워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진정한 할렐루야, 경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도성이 아닌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을 갈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특별대담

“젊은 세대와 함께 세상의 아픔 치유!”

국제 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가 그리는 미래!

온누리교회 새 식구가 생겼다. 40년 이어온 온누리교회 의료선교의 역사를 계승 및 확장하는 국제 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가 그 주인공이다. NGO ‘메디엑세스’가 지난 5월 24일(토) 오후 5시 창립예배를 드리고 공식 출범했다. 그들은 ‘젊은 세대와 함께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의료선교 플랫폼’을 지향한다. NGO ‘메디엑세스’ 정원만 부대표(이하 정), 김권일(이하 일), 김의석(이하 석), 안철민(이하 안), 황영진(이하 황) 이사에게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젊은 세대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국제 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 리더십들. 왼쪽부터 정원만 부대표, 김권일, 김의석, 안철민, 황영진 이사.

NGO 메디엑세스가 ‘종합의료선교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합니까?

정: NGO 메디엑세스의 궁극적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NGO 형태의 의료선교 플랫폼은 시대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메마른 선교지에서 의료선교라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내리고, 그 싹이 자라서 숲이 되도록 돕는 게 NGO 메디엑세스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안: 과거 의료선교는 선교지에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의료선교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의료선교 방향이 좌우되고, 외형적 성장이 궁극적 목적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NGO 메디엑세스는 바로 이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각 나라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됨과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성과 영성을 전파하는 성령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열방에 전해지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인력지원, 물적지원, 교육 및 자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이 네 가지 핵심 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할 영역이 무엇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황: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 람풍의 마르디와류요 병원을 첫 번째 사역지로 정하고, 그곳에서 의료서비스와 재정, 사회적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릴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NGO 메디엑세스의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도록 홍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정: 단기적으로 사역 대상 지역의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내부 자원을 발굴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역지인 인도네시아 람풍 마르디와류요 병원과의 협력 사역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사회의 의료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해 실행할 것입니다.

NGO 메디엑세스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현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협력 방안이 무엇입니까?

석: 먼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국내 의료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중장기적 의료 역량 강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인력을 파견해 사역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지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서 선교지 스스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안: 국내 우수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의료진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ODA(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파송한 중장기 선교사들을 현지 네트워크 팀장으로 세워 각 지역의 필요를 수렴하고, 국내 의료진들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모임을 만들 것입니다. 현지 의료기관과의 인적·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며, 전문성과 영성을 갖춘 이들이 참여하는 장(場)을 열 것입니다. 기본적인 모자보건, 예방의학, 환경의학부터 현지 상황에 맞는 전문적 분야까지 지경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차세대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들이 NGO 메디엑세스 사역에 동참할 때 얻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차세대 의료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계획도 밝혀주십시오.

일: NGO 메디엑세스는 의료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할 것입니다. 차세대 의료진들이 바로 그 일에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의료인은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료기술을 사용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감격과 감동을 안다면 의료선교 현장에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세대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의료 기술과 더불어 열정과 순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NGO 메디엑세스에서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안: 차세대 의료진들이 의료선교 아웃리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경험 있는 선배들과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의료선교학교 등의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NGO 메디엑세스 사역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참여할 기회를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메디엑세스가 국제 의료 NGO로 활동하면서 예상되는 도전이나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알려주십시오.

정: 크게 세 가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정체성에 관한 도전입니다. NGO지만 선교단체임을 포기하거나 부정할 수 없기에 본질적인 질문이 계속될 겁니다. 둘째, 재정적 부담입니다. 사역을 확장할 때 재정 확보가 가장 큰 도전입니다.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확보 및 집행도 신생 단체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셋째, 헌신된 인적 자원 확보입니다.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 부르심을 확인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 의료선교 역사에서 누가 주도할지를 논쟁하다가 사역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NGO 메디엑세스는 다른 의료선교 기관들과 협업하며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윤활유’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사역은 많은 비용과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늘 기도하고 깨어 있는 성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NGO 메디엑세스와 교회, NGO 메디엑세스와 성도가 유연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NGO 메디엑세스가 5년, 10년 뒤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합니까?

석: NGO 메디엑세스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던 의료선교를 국내외 모든 영역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 없던 지역에서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1차 진료를 넘어 병원사역, 장기사역, 의료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선교지의 의료체계 구축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 5년 뒤 NGO 메디엑세스가 종합의료선교 플랫폼으로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낙후된 지역에서 권역별 지부를 운영하고, 5천 명 이상의 단기 활동가와 5백 명 이상의 중장기 사역자들이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투명한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에 적대적인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경험하는 이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NGO 메디엑세스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석: NGO 메디엑세스는 시대의 변화와 선교적 요구에 맞춰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출범했습니다. 의료 사역은 의료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협력이 필요하고, 의료 외적인 기술이나 지식도 필요합니다. NGO 메디엑세스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합니다. 재정 후원뿐 아니라 직접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중보기도 그리고 동역자들의 힘!

성명자 권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준비된 신부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비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온누리신문〉에서 바로 그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 일곱 번째 주인공은 동역자들과 '중보기도'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마리아들이다. 마리아들을 대표해 오랜 시간 마리아행전 공동체 팀장으로 섬긴 성명자 권사를 만났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성명자 권사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서인지 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고, 해답을 알 수 없어 방황했다. 그 오래된 갈망이 그녀를 교회로 이끌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랜 시간 예배에 참석해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다. 교회마저 방황의 이유를 알려주지 못하는가 싶어 좌절하려 할 때 교회 권사님의 권유로 참석한 부흥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 체험이 그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출발점이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는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의 옷이 눈물로 완전히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등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명자 권사는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 맞는 동역자를 많이 만났다. 그녀는 동역자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에 기도모임을 가졌다. 그 기도모임이 그녀의 신앙 여정에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우리 세대는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격동의 시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란한 시대가 주는 아픔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평안한 나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한 그 작은 기도모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확장했다. '월요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역자들

성명자 권사가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준 동역자들이라고 했다.

중보기도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성명자 권사.

"함께 울고 웃는 동역자들이 제가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원동력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약해질 때마다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모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왜 동역이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설명했다.

"20여 년 넘게 마리아행전을 섬기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박 모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일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습니다. 마리아행전 기도모임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황이 나아지면서 다시 현장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은 예배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암 투병하느라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박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힘을 모아 온라인 중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랜선 설치, 음향 장비 준비 등 집회 현장을 중계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동역자가 기꺼이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박 권사님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동역의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성명자 권사는 남편 이통형 집사의 투병 과정에서도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했다. 췌장암 3기라는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부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들의 중보기도였다.

"그 엄청나게 큰 죽음과의 싸움에서 남편과 제가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 동역자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치료 일정이 복잡하고, 상황이 급박할 때마다 상황을 공유하면 마리아행전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정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가족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동역자들이 함께 감당해 줬습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면 기적처럼 남편이 고비를 넘기곤 했습니다. 2년이 되어 가는 긴 치료의 여정을 늘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기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명자 권사는 그 과정에서 다시금 동역자의 필요성과 중요성,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확신했다.

"남편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자신이 새롭게 거듭났다며 자기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떤 분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중보기도 하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부부가 환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와 동역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

오랫동안 마리아행전공동체 팀장으로 섬겼던 성명자 권사는 지금도 기도와 사랑, 헌신으로 섬기고 있다. 남편 이통형 집사의 투병 중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를 이끌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성명자 권사에게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그날,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언제든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 삶을 붙드는 큰 위로와 힘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행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성명자 권사는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게 기도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꺾이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이자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진 지금, 기도의 자리에 꼭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경은 '쉬지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사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까? 마리아행전으로 오십시오!"

성명자 권사는 삶을 이렇게 간증했다. 중보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킨다고 말이다. 그녀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문의: 02-3215-3667
02-3215-3201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흘러간다!

장보원 성도
(일산파주공동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팀장, 〈소리로 흐르는 육아〉 저자)

나는 오랫동안 유치원 일반학급, 특수학급에서 근무해 온 교사이자 음악치료사이며 두 아들의 엄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일반학급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생기 가득했던 첫 마음과 달리 교직 2~3년 만에 한계에 다다랐다. 유독 우리 반에 매년 특별한 행동과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여러 명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말하고, 걷고, 놀이하는 모습도 여느 유치원생들과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런데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한 아이들이 갖가지 문제행동과 울음, 또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쏟아냈다. 당시 내 능력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다.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담임교사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에 진학하게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효과적인 교수법을 고민하며 음악치료까지 수학(修學)했다.

17년 동안 교육과 치료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아이와 부모들을 만났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인들의 자녀, 대기업 손자, 방송인들의 자녀들과 생활했는가 하면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가정의 아이들과도 같은 교실에서 함께 지냈다. 나는 산 경험을 통해 육아의 본질을 발견했다. 육아란 '흐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흘러간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인격을 형성시키지 않는다. 부모의 고학력, 고스펙이 자녀의 성품을 결정짓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 부모의 위치가 자녀의 건강한 신앙을 확보하지 못한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는가? 초당 168만l 의 물이 53m 높이에서 쏟아져 내리는 장관이 펼쳐진다. 이를 마주한 사람들은 "압도적이다", "빨려 들어갈 것 같다", "온몸이 다 젖었다"고 표현한다. 폭포를 실제로 보지 못한 내가 가장 먼저 상상해 본 관광객들의 심정은 통제 불가능한 압박감이다. 그 어떤 힘으로도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의 방향을 거스를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부모의 소리가 아이에게 전해지는 방식도 이와 같다. 부모의 모든 말과 소리가 폭포수처럼 자녀에게 흘러간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나 의사소통의 차원을 넘어선다. 부모가 하는 모든 말, 중얼거리는 혼잣말, 내뱉는 한숨, 미세한 표정, 버릇과 같은 제스처, 분노와 불안, 우울까지 모든 것이 끊임없이 자녀에게 흘러간다. 자녀는 강력한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채 그대로 떠안게 된다. 폭포를 이루는 작은 물방울들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오랜 시간 흘러와 이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침내 끝을 알 수 없는 저 아래 그 어딘가로 굳세게 떨어진다. 이처럼 오랜 시간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쌓인 모든 소리가 지금의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강한 흐름을 타고 이 순간에도 내 아이에게 이어진다. 그 소리는 나의 부모에게 들었던 말투이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어조이며, 우리 가문에 흐르는 습관이기도 하다. 제아무리 강력한 물방울일지라도 마침내 도착한 폭포 앞에서 낙하가 두려워 역주행하는 일이 불가능하듯 내 생각과 가치, 언행과 습관도 의식했든, 그렇지 못했든 끊임없이 흘러간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물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사랑이 흐른다. 세상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질서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그 증거다.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위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모든 것이 흐르게 되어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 형질만 물려주지 않는다. 성품과 기질, 습관과 말투, 기억과 트라우마까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대물림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다. 최근 관련된 과학적 근거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결국,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다. 부모가 자신을 스스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성찰하고 있으며, 원가정에서의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가?',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으며, 조부모님은 어떤 분이었나?', '원가정에서 충분한 관심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그래야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어떤 잘못된 대물림을 끊을지 결단할 수 있다.

어느 유튜버에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 질문했을 때 "열매가 좋으려면 나무가 튼튼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고 견고한 나무 가꾸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나는 경험에서 비롯된 궁금증과 호기심을 토대로 교실 속 이야기와 두 아들을 키운 에피소드를 모아 지난 3월 초 〈소리로 흐르는 육아〉를 출간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육아 대물림의 논리적 근거와 대물림을 끊어낼 힘과 에너지, 나를 돌보는 방법과 함께 음악치료사로서 육아 현장에서 음악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다양한 활용법을 나누고자 한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생명의 흐름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이어지는 육아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흐름은 〈잠언〉의 가르침(잠 22:6)처럼, 부모의 말과 삶, 신앙의 유산뿐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축복과 과제(출 20:5~6)까지 자녀의 삶에 깊이 새겨진다. 부모란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하셨듯, 부모님이 나를 위해 그러하셨듯 말이다. 진정한 의미의 육아란 자녀를 통해 나의 본모습을 직면하고 좀 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진정한 의미의 육아란
자녀를 통해 나의 본모습을 직면하고
좀 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소감

나도 엄마처럼!

어느 날, 엄마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하 어린이 일대일)을 하자고 하셔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이 일대일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엄마가 제안도 했고, 엄마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보다 많이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린이 일대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만 믿는 충성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일대일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다은 어린이
(서빙고 소년2부)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5월 29일자 본문 '〈민수기〉 31장 1~6절'

1.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를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셨나요?
① 블레셋 사람들 ② 이집트 포로들 ③ 이스라엘 백성들 ④ 로마 군인들

2.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각 지파마다 보낸 군사의 수'와 '전체 군사의 수'는 각각 얼마인가요?
① 2천 명 / 8천 명 ② 1천 명 / 1만2천 명 ③ 5백 명 / 6천 명 ④ 1백 명 / 1천2백 명

3.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무엇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나요? 모두 고르세요.
① 거룩한 물건들 ② 돈 ③ 신호용 나팔 ④ 법궤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정).**

*** 1538호 정답자: 조이안 학생(양재 유치1부), 오창빈 학생(서빙고 유년1부)**

십자가 위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정의!

‘회복’이라는 이름의 정의를 생각하며…

양웅 장로
(법조인맞춤전도집회 기획팀장, 변호사, 이수공동체)

오늘날 사회에서 ‘정의’라는 말을 누구나 매우 쉽게 사용한다. 하지만 정작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 사법,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정의’를 자처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는 ‘자기만의 정의’가 공공의 장에서 목소리 낼 때 사회 전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잃고, 사람들은 점차 깊은 피로감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혼란은 ‘정의’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기준 없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나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정의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때 공동체는 합의와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게 된다. 오늘 마주한 정의의 혼란은 단지 법적 판단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지금 어떤 근본적인 기준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최근 몇몇 재판에서 1심, 2심, 3심 판결이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만을 ‘진짜 정의’로 여기고, 불편한 결론은 부정하려 한다. 정의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공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감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가장 깊이 상처 입는 것은 어쩌면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정의’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정의가 존중받지 못하고 왜곡될 때 그 그림자는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드리워져 불신과 냉소를 키워낼지 모른다.

“정의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의 아픔과 필요를 향해 흘러가야 할 생명력 있는 원리다.”

그리스도인의 정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세상의 정치 논리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 정의’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다. 각자의 견해를 하나님의 뜻인 양 단정하고,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린 언어로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은 복음의 빛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상처 입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 그 자체다. 복음이 주는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가 세상의 분열과 대립 속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정의를 누구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될 수 없다. 법은 원칙을 따르지만, 인간의 삶은 단순한 원칙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다단한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법적으로 지극히 옳은 판결이 정작 인간 삶의 무게 앞에서는 깊은 상처와 회복 불가능한 아픔을 남기기도 한다. 따라서 정의는 ‘형식적인 정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정의는 ‘회복’이라는 이름이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가 있게 된다. 깨어진 것을 고치고,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며,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지향점이어야 한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태복음 주석서〉에서 “정의 없는 자비는 혼란의 어머니이며, 자비 없는 정의는 잔인함”이라고 통찰했다. 이는 정의와 자비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보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쌍두마차와 같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비 없는 정의는 사람을 억압하고 숨통을 조이며, 공동체에 뼈아픈 불신을 남긴다. 정의 없는 자비는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키며,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참된 정의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경도 이 사실을 노래한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이 말씀 속 정의는 멈춰 있는 개념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마르지 않는 강처럼 지속적으로 흘러야 하는 역동적인 실천이다. 이는 단 한 번의 법적 판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되어야 할 윤리적 자세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붙들 정의는 단호한 원칙 위에 서 있으면서도 따뜻한 사랑을 품고, 형식적인 규범을 넘어서 사랑을 향한 깊은 공감과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Generous Justice)에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정의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단지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행위다.”

팀 켈러 목사는 정의를 복음의 열매로 보았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마땅히 회복을 위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의는 단순한 처벌이나 균형의 개념을 넘어 피폐해진 삶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실제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내면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

법조인은 ‘정의’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서 일한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정의에 대한 균형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만큼 무겁고 고된 것이기에 때로는 내면이 메마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정의를 위해 싸우던 마음이 어느 순간 피로와 깊은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것은 개인의 나약함이라기보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완전한 정의’를 구현하려 할 때 반드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정의를 오직 하나님께 배우고, 의지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누구를 위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가?”

“나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이 지쳐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다. 내면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다. 정의에 대한 혼란은 결국 내 안의 기준이 흔들릴 때 시작된다. 나의 주관적인 정의감에 사로잡혀 사고의 균형을 잃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감각을 상실할 때 안팎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배우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잃어버렸던 진리의 감각이 회복될 것이다. 흔들리던 내면이 다시 확고한 중심을 찾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을 향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십자가의 정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

십자가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 정의는 상처 입은 자를 향해 먼저 손 내밀어 다가간 사랑이었고, 인간의 불완전한 기준을 뛰어넘는 무한한 자비였다. 십자가의 정의는 죄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성경은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이 말씀처럼, 정의는 단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드러나야 할 삶의 자세다. 진정한 정의는 회복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태도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정의를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사랑과 자비가 동반된 관계적, 실천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한다. 정의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의 아픔과 필요를 향해 흘러가야 할 생명력 있는 원리인 것이다.

출애굽, 시내 산 언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미국 혁명의 관점 vs 프랑스 혁명 사상의 관점

하선희 집사
(강남E공동체, 콜슨 펠로우즈 한국지부 대표)

우리 사회가 극도로 분열된 현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남북전쟁 이래 가장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오스 기니스는 "미국 혁명의 관점에서 공화국과 자유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사상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영향을 미친 자유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을 낳은 미국의 혁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대부분 기독교인도 잘 모른다. 그러나 〈출애굽기〉가 억압적인 전제 군주 밑에서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발적 순종을 서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된다. 오스 기니스가 〈인류의 대헌장〉(Magna Carta of Humanity)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 연관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개입해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다. 그게 바로 영국과 미국의 혁명이었고, 모두 〈출애굽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반면 반기독교적인 표현에서 비롯된 혁명적 민족주의,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어났던 혁명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뿐 아니라 혁명적 해방주의 즉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성 혁명, 정체성 정치, 캔슬 컬처 등 교회를 위협하는 이 모든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사상으로 실제로 통치되는 나라들과 근접해 있기에 이러한 분열 상황은 사실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실존의 문제다. 따라서 아래 요약한 오스 기니스의 주장은 미국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더 절박하게 필요해 보인다.

자유는 미덕을 요구하고, 미덕(정직, 충성심, 애국심)은 신앙을 요구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사람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발견되는 (사람인 왕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로 유지되는) 히브리 공화국 사상에 매료되었다. 〈출애굽기〉 19~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기반하고, 상호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시내산 언약은 미국 헌법의 원형이 된다. 언약의 조건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출 24:3)라고 응답하는 것은 헌법의 기초가 되는 사회 계약의 개념과 유사하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동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지도자가 백성의 의사를 존중하는 통치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피치자의 동의'라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 준다. 게다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보좌하는 아론과 훌,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고 참여하는 역할을 통해 초기 형태의 권력 분립도 엿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며, 자율적인 행위의 주체자로서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성경적 인간관에서 나왔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히브리 공화국의 본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에게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집단적 연대감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권은 책임이 수반된다. 제임스 매디슨의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미국 헌법의 핵심적인 특징인데, 이 사상은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였던 그의 스승 존 위더스푼에게서 배운 것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 잘못을 저지르고, 모든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 사상은 종교 개혁에서 비롯되었다. 종교 개혁과 미국 혁명은 깊이 현실적이다.

반면 본래 선한 인간은 혁명을 통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급진적 좌파 사상은 항상 유토피아적이다. 간단히 말해서 실제 역사에서 혁명적 급진 좌파를 보면 그들의 혁명은 결코 성공한 적 없고, 그들의 억압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유토피아'란 말의 뜻이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까닭이다.

이 둘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권력이 남용될 우려를 반드시 인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제한 없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방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유는 미덕을 요구하고, 미덕(정직, 충성심, 애국심)은 신앙을 요구한다. 신앙이 없으면 덕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앙은 자유(특히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요구한다. 그리고 신앙은 다시 미덕을 낳고, 미덕은 자유를 낳는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처음부터 강조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교회 안에 부패와 강요, 억압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종교 개혁이 양심의 자유를 재발견하게 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놀라운 사상이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낸 오스 기니스처럼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뼈저리게 안다.

종교 개혁과 〈출애굽기〉에서 비롯된 이 사상을 미국의 시조들은 가르쳤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최고로 빛나는 순간에 세계가 본 가장 위대한 자유의 정치적 질서가 불과 몇 세대 만에 무너지고 있다. 무솔리니 치하 감옥에서 마르크스가 왜 실패했는지 고민하던 안토니오 그람시는 혁명의 사상을 경제와 정치에서 문화로 옮겼다. 문화를 장악하면 전체 사회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학, 언론, 미디어, 문화 산업을 장악하는 '긴 행진'이 50년 넘게 진행되었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지금 우리가 보는 뒤집힌 세상은 바로 그 열매들이다.

>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양심과 신앙에 따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시저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빌헬름 라이히는 이미 100년 전 〈성 혁명〉이란 책에서 "우리의 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독교 교회이고, 두 번째는 부모"라며 성적인 억압을 제거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해체 시키면 기독교 교회와 국가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해체될 거라고 주장했었다. 지금은 아예 차별금지법을 통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인정하고 축하할 것을 강요하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우리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한다. 반대하는 주장은 SNS 검열을 통해서라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안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 있다

프랑스 혁명 정신을 계승한 하나님을 죽인 포스트모던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기에 결국 모든 것은 적자생존, 즉 권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거짓과 기만적인 문화가 매우 발전했다. 정치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탈 진리 시대에 자연스러운 게 되었지만, 사실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진리를 버린 세계는 자유에 절대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진리와 그 의미, 사회적 유대감을 주는 것들이 없다면 의미와 사회적 유대감을 잃은 국민을 결속시킬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유와 인간 존엄성이 지극히 해로운 방식으로 깊이 해체된다. 남는 것은 견제 없는 권력자의 폭정이다.

교회인 우리는 시내 산에서의 올바른 혁명적 신앙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어떤 책도 〈출애굽기〉보다 수 세기 동안 자유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렸다. 이 시대는 역사를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형성한 위대한 사상이 필요하다. 이는 모두 정체성과 연속성에 관한 문제다. 우리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다시 배우지 않고, 악한 흐름을 막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 두신 것이다.

원래 죄없이 선한 인간은 사회 구조의 억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의 힘과 이성으로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지, 남성과 여성이란 무엇인지,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명은 언제 시작하는지, 아이들이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는 권력을 획득한 계층이 정해야 한다는 프랑스 혁명의 후예들은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고 두신 세상의 많은 질서와 법칙도 믿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들은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중력과 같은 자연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재정의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신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날겠다고 지붕에서 뛰어내려 머리가 깨지는 숱한 희생자를 낳는다.

다소 암울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아직 우리에게 선거는 물론 양심과 신앙에 따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시저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맛있는 말씀 해설

"…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막 7:18)

〈마가복음〉 7장은 '정결법'에 관해 설명한다. 문학적 구조를 보면 〈마가복음〉 6장 45~56절과 7장 24~30절이 7장 18절을 중심으로 앞뒤가 서로 호응하는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다. 6장 45~5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벳세다로 가던 중에 게넷사렛에서 잠시 머문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치유의 손길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신다. 게넷사레 지역은 요세푸스에 따르면 비옥하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땅으로 유대인의 정결법상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부정한 곳이었다.

7장 24~30절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한다. 그녀는 그리스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 매우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신 예수님이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 이 두 이야기를 앞뒤로 두고, 마가는 자신을 거룩하다고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정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가르쳤다.

원래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 세속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였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많이 왜곡되어 있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주의적 외식으로 변질되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이나 물질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겉만 깨끗하면 속은 어떠해도 거룩함과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마가복음〉 7장 20~23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악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같은 악한 것이 마음속에서 나와 사람의 행위를 더럽히는 거라고 가르쳐주셨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기에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왜곡된 정결법을 바로잡아주고 계시는 것이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즉,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렘 17:9).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성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시고자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죄와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은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더해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고자 했는데, 이것은 복음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의미다.

십자가에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에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은혜의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주의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정결법조차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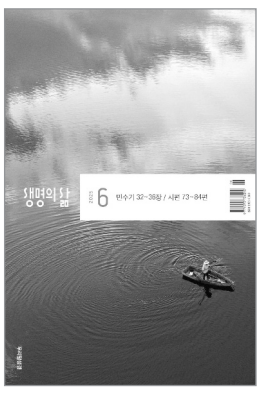
진정한 거룩함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6월 2일~6월 8일
〈민수기〉 32:16~35:8



묵상포인트 1: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사사로운 유익을 내려놓고, 공동체 유익을 우선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 동쪽 땅을 소유하기 원했던 지파들이 처음의 이기적인 태도를 바꿔 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묵상하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땅에 머물기를 원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단 동쪽 땅에 가족과 가축을 위한 성읍을 건축한 뒤에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다. 모세는 그들이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한다. 모세는 이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에게도 알리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대표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약속과 헌신을 선포한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땅에 가족을 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

묵상포인트 2: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노정마다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원망과 불신의 장소에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 묵상하자.

▶33장은 출애굽 이후 광야 노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다음 날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고 계속 행진했으나, 가데스 바네아(가나안 정탐)에서의 불순종으로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에 이르렀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해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른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할 일들을 명령하신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모두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뽑아 공평하게 기업을 나눠야 한다.

묵상포인트 3: 가나안은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거주할 출애굽 2세에게 말씀하신다.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 땅 분배 원칙, 땅 분배에 참여할 대표자 선정 등에 담긴 하나님 뜻을 묵상하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사방 경계를 세밀하게 알려 주신다. 요단 서쪽(가나안) 땅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기업으로 받는 땅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참여할 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한 사람씩 세우게 하신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에게 성읍과 초장을 제공하게 하신다. 레위인은 도피성 여섯 개를 포함해 총 48개 성읍과 초장을 받게 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추진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사사로운 유익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협력하자.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에서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자. 그리고 앞으로 여정에서 믿음과 순종을 다짐하자.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과 우상을 모두 제거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셨다. 거룩한 삶을 위해 내가 제거할 것이 무엇인가? 악은 아주 작은 거라도 버리는 영적 민감성을 주시기를 간구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땅 분배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나와 공동체에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김현준 집사를 위해서

지난 10월, 출근길에 뇌출혈로 쓰러진 제 남편 김현준 집사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김현준 집사는 뇌실과 뇌간의 출혈로 언어장애와 인지장애, 사지마비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다만, 발병 이후 1년까지는 재활 치료를 통해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의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깊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김현준 집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는 제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초기 단계에 발견되어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회복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몸을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오직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위로를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김미선 성도(강서공동체)

NGO 메디엑세스 창립축하예배

리더십 및 의료인, 봉사자, 성도 등 400여 명 참석

국제 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이하 NGO 메디엑세스) 창립축하예배를 지난 5월 24일(토)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드렸다. 온누리교회 리더십 및 의료인, NGO 메디엑세스 리더십 및 봉사자, 성도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NGO 메디엑세스 창립축하예배는 가수 이무송 집사가 사회를 보고, 블라썸챔버, 소프라노 신델라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강부호 목사 축도, 메디엑세스 김병순 대표 인사, 박준범 회장, 이인용 장로 축사, 윤형주 장로 특순,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눅 10:25~37)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앞으로 NGO 메디엑세스가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품고 돌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NGO 메디엑세스 창립축하예배.

김병순 대표는 "NGO 메디엑세스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준범 회장은 "NGO 메디엑세스가 대한민국 전체 의료선교를 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큰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고,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는 "CMN이 그동안 쌓아온 귀한 의료선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NGO 메디엑세스가 더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폭넓은 의료선교사역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AI 시대, 교회가 혁신 주도하자!"

퐁당 미디어 콘퍼런스, 215개 교회 및 단체, 1,185명 참석

2025 퐁당 미디어 콘퍼런스(이하 FMC25)가 지난 5월 26~27일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이틀 동안 215개 교회 및 단체에서 목회자 및 신학생, 성도 1,185명(26일 617명, 27일 568명)이 참석했다.

FMC25 첫째 날(26일) 이재훈 위임목사는 "교회는 AI 기술을 뛰어넘는 HI(Holistic Intelligence)를 배양해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혁 교수는 "AI 시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영역을 넘어서는 인식의 확대, 보폭을 맞춘 응답, 지속적이며 협업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덕진 소장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비전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AI를 좋은 도구, 선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FMC25 둘째 날(27일)은 AWS, 플레이아이디어랩, 다글로, GLOO에서 AI 기술을 교회 사역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강의했다. CGN 퐁당제작본부에서 기독 OTT '퐁당'을 활용한 교회 사역을 소개했다.

/ 홍하영 기자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개최

6월 22일까지 접수, 총상금 500만 원

CGN이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6월 22일(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대상(1팀) 300만 원, 2등(1팀) 100만 원, 3등(2팀) 50만 원을 준다.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은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구성된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획안 접수는 6월 22일(일)까지 구글폼(QR 참고)으로 하면 된다. 기획안에는 제목, 콘텐츠 정보(편수, RT), 기획 의도, 로그라인 또는 시놉시스, 기대효과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공모 부문은 'CGN TV'와 '기독 OTT '퐁당' 및 CGN 유튜브 채널'이다. 두 플랫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콘텐츠를 제안하면 된다.

문의: 02-796-9800

2025 달려라퐁당 종료!

6월 20일까지 후원금 입금

2025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퐁당'(이하 달려라퐁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달려라퐁당은 5월 10일(토)부터 24일(토)까지 이어졌다. 성도 2,600여 명이 참가했다.

달려라퐁당은 부모와 자녀,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걷고, 달리면서 CGN을 후원하는 챌린지다. 후원금 전액 가정과 차세대를 위한 기독 OTT '퐁당' 콘텐츠 제작 및 허입에 사용된다. 현재까지 후원금 2,600여 만 원을 모금했다. 아직 후원금을 입금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6월 20일까지 후원 목표 금액을 CGN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98304)로 보내면 된다. 후원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입양위탁세미나개최

6월 15일 오후 5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사회선교본부 제이홈사역팀(입양위탁커뮤니티)과 울타리사역팀(보육원 아동 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역팀)에서 '입양위탁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15일(일) 오후 5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에서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여정'을 주제로 열린다. 입양위탁세미나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여정'에서는 최순영 자매(1세대 입양인, 입양인 권익활동가)가 강의하고, 제이홈사역팀과 울타리사역팀 사역 소개 및 질의응답을 한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울타리사역팀 제이홈사역팀

문의: 02-3215-3434

제11차 장로아카데미, 온누리교회 및 협력 교회 장로 36명 수료

제11차 장로아카데미 수료식이 지난 5월 24일(토)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7곳, 해외 비전교회 6곳, 협력 교회(춘천 새순교회) 장로 36명이 수료했다.

장로아카데미는 당회운영위원회의 학습공동체로, 장로의 영적 성숙, 리더십 개발 및 친교, 온누리교회 영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제12차 장로아카데미는 내년 3월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11차 장로아카데미 수료 명단: 강성규, 김경환, 김도영, 김백중, 김성훈, 김성종, 김승집, 김영관, 김영환A, 김종수, 김종호, 나광욱, 나상욱, 남영근, 노유철, 문충실, 박명균, 박재영, 방찬종, 라상원, 송동섭, 송태민, 심삼일, 신동기, 오문목, 유봉국, 윤기홍, 이미섭, 이광순, 이광철, 이수성, 장원준, 최민철, 한덕종, 허규회(가나다 순). / 홍하영 기자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6월 15일(주일) 서빙고 3부 예배 / 장소: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대상자: 5월 4일~5월 31일 사이에 완료 보고된 성도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서빙고	김미선 박양화 배빛나 김소연 전지윤 윤미경	이지은 이지선 HaJean 권혜영	전은혜 한정화 지은경 최용남	임인택 이학철 임지수 진수정 임효영 김희진 정연경 양지연 조미령 전경환 최예향 이정아 최예희 윤미자 홍라헬 홍수연
▪ **강서** 양정은 이영미	▪ **성북** 김택구 유덕수 박무늬 권순영 유정심 최성희 이지원 이규민 임해연 박금선 황 준 김현철	▪ **중종로** 강민재 김창연 정승리 주영진 정혜린 전성심	**대학청년**	
▪ **강촌** 남성식 목준균 오지유 심동수 전인숙 신경화	▪ **신용산** 김미진 전주옥 김형석 김주현	▪ **평택** 유인승 이광희	▪ **길** 이창조 이용석	▪ **W** 전주영 이경애
▪ **관악금천** 권경미 양선혜 임승빈 김회선	▪ **양천** 박현정 최희규	▪ **한강** 김다솔 김민영 김수범 이정현 박영준 전용우 서영애 임은순	▪ **하늘** 민준희 백경원 이가은 정미희 임채연 정혜정 정지원 이의춘 조 명 연명은 최영은 오미영	**양육자반**
▪ **광명** 김지은 황은정	▪ **영등포구로** 김은령 유정경	▪ **공동체 없음** 권민희 조은숙 권영현 김용선 이주은 안경자 홍예은 장서운	▪ **SNS** 고찬영 박무일 구현정 진휘연 김소정 석혜선 김혜미 김혜빈 박시온 이경희 사동은 박세연 성지해 임선양 양재민 김영석 양하은 김수진 예창희 공수철 오효진 김경희 왕중걸 우청석 이지혜 이수정 이 춘 백정현	**서빙고**
▪ **김포** 이윤숙 최혜경 차강훈 유영준	▪ **용산** 기영희 정혜경 유근창 지상돈	▪ **OCC** 성가은 박정미		▪ **이영근 장로반** 김경희 김미진 김민선 김영하 김은경 문희준 민경은 박군도 오해준 이민규 이윤정 장대수 전석순 지삼호
▪ **노원** 이재열 김순태	▪ **이수** 김경미 배금란 박종숙 우정서	▪ **OEM** 손채린 송은영		
▪ **마포** 김자근 이현철	▪ **일산파주**	▪ **S브릿지** 김우현 김재영		
▪ **서대문** 봉윤이 이인숙				
▪ **성동광진**				

알콩달콩부부학교 본부 18기 참가자 모집

알콩달콩부부학교 본부 1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엘사랑교회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0만 원(부부당).

문의: 02-2182-9110

일대일 양육자반 서빙고 김광하 장로반 모집

일대일 양육자반 서빙고 김광하 장로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6월 15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일대일 양육자반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이다.

김용성 현대성화전 '아름다우신 예수'

온누리아트비전에서 6월 8일(일)까지 외부 작가 초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초대전은 김용성 작가의 현대성화전 '아름다우신 예수'다. 온누리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섬김', '주 나의 목자' 등 작품 2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작품 문의: 010-2321-6494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장로칼럼

생각의 폭 넓히고, 신앙 깊이 더하고!

라상원 장로
(대전온누리교회)

2021년 장로장립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장로 아카데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건이 허락되면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제11차 장로 아카데미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 없이 참여했다. 제주와 대전을 오가며 지내는 지금 상황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최적의 조건이었다. 이번 교육 과정에 참여하며 평소 교제하기 어려웠던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온누리교회 장로님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장로 아카데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로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을 돕는 학습 공동체'다. 장로 아카데미의 모든 커리큘럼은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로로서의 영성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이며, 각종 사역에 대한 배경과 비전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과정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장로 아카데미에 참여한 것 자체가 '종합선물세트'를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장로 아카데미의 또 다른 묘미는 전문적인 강의다.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특히 류현모 교수님의 강의는 기독 OTT '퐁당'과 유튜브 등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장로 아카데미에서 들으니까 또 새로웠다. 이번 강의를 통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과 윤리관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매주 제11차 장로 아카데미에 참여한 장로님들이 속한 해외 비전교회나 캠퍼스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에 같은 교회 공동체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캠퍼스 교회는 가끔 대표기도를 하려고 방문할 수 있지만, 해외 비전교회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번 기회에 소개받은 해외 비전교회(얼바인, 시드니, 동경, 보스턴, 시카고, 포틀랜드)와 최근 형제 교회가 된 춘천 새순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서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리적 거리를 넘어 영적인 연결감을 형성해 주었고, 서로의 사역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매주 강의를 듣고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좋았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과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생각의 폭을 넓히고,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로의 경험과 깨달음을 공유하며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점이 제11차 장로 아카데미에서 받은 큰 은혜의 하나였다. 다만, 전체적인 시간 제약으로 나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매주 나눔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웠다. 그럼에도 다음 주에 어느 조에서 나눔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기에 개인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제11차 장로 아카데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앞으로 이 배움이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11차 장로 아카데미를 신실하게 섬겨주신 김명현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실행위원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사역칼럼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노다 가츠토츠 목사
(The Way 위원, 히바리가오카 바이블처치)

내가 사역하는 히바리가오카 바이블처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놀라운 방문을 경험했다. 한국의 4개 교회가 차례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류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청년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중에서 대전온누리교회는 2017년 러브소나타 도쿄에 참가한 20여 명의 일행을 이끌고 우리 교회 주일예배에 함께했었다. 팀을 인솔한 30대 목사님은 차세대 교육에 깊은 열정을 가진 분이었다.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차세대 숫자보다 한국에서 데려온 차세대 숫자가 적은 것을 아쉬워했었는데, 이듬해 더 많은 학생을 데리고 오셨다. 그 덕분에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함께 야외 활동하고, 노방전도와 전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다. 그 목사님의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태도에 깊이 감동했다.

나머지 세 팀은 한국의 찬양사역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탁월한 팀이었다. 그들이 인도하는 예배와 집회는 영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났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들은 매번 워크숍을 열고 예배자의 자세, 보컬 및 악기 기술, 밴드 연주 요령 등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 덕분에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찬양사역자로 크게 성장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예배를 활발하게 섬기고 있다.

한국에서 온 크리스천들의 인상을 떠올려 보면, 한국이나 일본의 중고등학생과 20대 초반 정도의 청년들 모두 믿음의 열정과 청년 특유의 분위기가 비슷했다. 하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리더들은 한국의 두터운 크리스천 층에서 선별된 이들답게 정말 인상 깊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선교와 예배의 비전에 불타며,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매우 겸손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어주었다. 나 역시 그들과 교제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은혜받고 배운 것 같았는데, 한국 방문자들도 우리와 교제하며 "격려 받았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입을 모았다. "요즘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순수한 믿음을 보았다"거나 "대형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가족 같은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경험했다"는 감동적인 소감을 여러 번 들었다.

확실히 일본 크리스천에게는 그들만의 고난이 있고, 한국 교회에도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양국 크리스천이 서로 접촉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이 교류를 통해 일본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두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예배와 선교사역을 추진하면 부흥의 열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달, 새로운 세대의 한일 교류가 시작된다. 7월 4일과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의 막이 오른다.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만나서 좋은 친구로 연결된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벌써 기대가 된다.

신앙에세이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조호영 목사
(여성사역)

종종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여성사역과 여전도회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가 '여성사역'보다 '여전도회'나 '여선교회'라는 용어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둘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여전도회'는 교회의 여성들이 나이별로 나뉘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예배를 드리며, 때로는 참기름을 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모임(Women for Ministry)이라면, '여성사역'(Ministry for Women)은 교회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부 사역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세대 사역을 하듯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여성사역의 방향과 비전은 온누리교회와 위임목사의 목회 철학에서 출발했다. 1999년 말, 故 하용조 목사님이 여성 리더십들이 모인 집회에서 "21세기는 3F(Feeling, Fiction, Feminine)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당시 전도사였던 이종실 목사님에게 "여성사역을 시작해 보라"고 권하셨다. "여성사역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나도 몰라. 다만 여성들이 성경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양육 받고 변화되어 가정과 교회,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어."

2000년, 교회에서 임명한 한 명의 전임목회자와 두 명의 평신도 전임사역자가 세워지면서 여성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성사역은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목회 비전을 품고, 서빙고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전 캠퍼스로 확장됐다.

여성사역에는 두 개의 비전이 있다. 첫 번째 비전은 'Eve2Mary(이브에서 마리아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죄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이브에서, 천사의 수태고지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며 믿음으로 순종해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마리아로 정체성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한 여성이 성경적인 여성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 말씀묵상 훈련, 다양한 양육 스쿨, 기도모임과 외부 봉사 사역(좋은이웃모빌팀),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 기획된 '수요오전여성예배' 등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예배는 '눈물의 예배'라고 불릴 만큼 진한 은혜가 가득하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드리는 여성예배는 온 누리의 여성을 초대한다.

두 번째 비전은 '마리아행전' 이다. 구원받고 변화된 마리아들이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며 가정과 교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돕는 비전이 '마리아행전'이다. 15년째 매년 6월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개최된다. 이제는 온누리교회를 넘어 다른 교회와 해외 비전교회 여성들과 외국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확신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품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운동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또 매해, 성령님이 기도제목을 주시고, 친히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 올해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강의 복'을 주제로 3일간 양재에서 열린다. 이러한 큰 마리아행전이 올려지기까지 매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 마리아행전'과 매월 여성예배 마지막 주에 드리는 '월 마리아행전', 365일 마리아행전 기도책자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리아들의 기도가 마중물로 채워지고 있다.

'여성사역'은 단순한 여성들의 모임을 넘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여성들이 성경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적 운동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성들로 인해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AMA 협력교회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노규석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광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치형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행삼 백성우
변대섭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대종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목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진기
이찬우 이호준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회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해롤드김
허원희 황문규 황신연
◈전도사(전임)
길한솔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송예찬 안대진 유성하
유현우 이승호 이형목 임동현
장지훈 주하늘 최강호 홍근영
황유일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컬 서경남 서영철
싱루아마눕 양현수 유알렉세이 에릭 마이
클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헌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진숙 임혜선 정요한
제인량 존 굴레이즈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명주 강하람 강현구
구길모 권영찬 권예람 권평화
권혁성 김가희 김경배 김기태
김동우 김만순 김명초 김미리
김민수 김민희 김빛나 김승희
김소망 김예찬 김유미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성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홍미 김화목
나가노 마사토 남 혜 네우빠
네 피터 드미트리 문수진 미즈바울
박 권 박미애 박 성 박성훈
박요한 박용민 박유진 박의력
박종일 박찬미 방예린 방진아
배윤주 서아연 서은규 서혜진
손위결 송영호 신호철 심은섭
안류택 염경덕 오성광 오성민
오예원 오진우 오혜광 우수진
우승희 유석현 유요한 유지은
유 찬 윤길문 윤조현 윤종연
이나단 이미진 이민규 이반석
이선민 이선혜 이소라 이승은
이승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주영 이준영 이지영 이형준
임경미 임노완 장건우 장성엽
장영주 전미연 전준호 정경일
정기은 정상원 정연영 정영현
정은영 정주은 정찬중 제영민
조기연 조민희 조슬기 조영찬
조운식 조준기 지석구 지수정
주승환 차선일 최규종 최민정
최 은 최혜정 하예림 한용태
허영은 홍세나 홍슬기 황서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두진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병옥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준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나상권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명률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일구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형민
박흥균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학철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양춘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백용 이상기
이상덕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헌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전한백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상기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운오 정재탁 정재현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진호 조청구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함일성
허광수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종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범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태일 곽희준 구자엽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지학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창원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석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경한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성규 박영한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 현 박현규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현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래
손태용 송기선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헌승 심길섭 심천보 심효무
심희돈 안상헌 양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충식 양현열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상혁 이석일 이성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자형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풍우
이태열 이학일 이해달 이홍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채남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문석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정광열
정명호 정석순 정연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주성대 주재량
진종구 차춘근 최민철 최봉림
최석민 최성완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상진 하주헌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우 한왕석
한필규 함정철 허 경 허대행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승우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홍순직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 찬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슬기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민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보화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은영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영훈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서린 조영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전도사
강요안나 강진영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백만기 서영찬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다니엘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진혜선 최윤호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하여진
하청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승집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노유철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송태민 신솔문 심상일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상헌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최경주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서대원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희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재정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장인
김정운 김진우 김창식 김향선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식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안성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천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한증재 허 민
홍동욱 홍성은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소천

5/23(금) 송파B 한진규 성도 부친상 고 한창희
5/23(금) 송파A 박희정 성도 시모상 고 윤경자
5/25(일) 송파B 류미숙 집사 시모상 고 이연심
5/25(일) 강남B 이지은 집사 모친상 고 전영숙
5/25(일) 한강 홍성심 집사 부친상 고 홍재유
5/26(월) 양재 특별한초대 유정열 성도 모친상 고 천영자 성도
5/27(화) 동작 신귀례 권사 자녀상, 이명천 집사 자녀상 고 이희원
5/27(화) 찬양사역 이지은 성도 모친상 고 천분돌
5/28(수) 마포 박인성 성도 부친상 고 박창엽
5/28(수) 마포 정경희 권사 모친상 고 오봉근
5/29(목) 가정사역 이태훈 성도 부친상, 김정은 성도 시부상 고 이재해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 (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청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유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합창단 모집
기간: 2025년 11월까지
모집: 세대 교류 및 소통을 희망하는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내용: 합창 연습, 세대 간 교류 및 소통
신청: 유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가족센터 '2025년 나만의 특별한 서리풀 스몰웨딩' 참여자 모집
대상: 서초구 거주 예비부부(부부 중 1인 이상 서초구민)
내용: 예식 공간 대관료(카페 고고스, 카페 보아즈 택 1) 지원
신청: 5월 31일까지
접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seochofamily.com)
문의: 황지선 팀장(070-7477-2401)

재정

온누리교회앱의 헌금 메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여 사용하세요.
헌금온라인 안내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 · 중등)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1, 3주 주일 연습 오후 1시 30분~3시)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김유미(010-3923-0416)

두란노국제선교회(TIM) 간사 공개채용
모집: 행정 간사 1명(정규직, 4대보험)
자격: 세례교인, 경력 무관 및 경력 우대
형태: 주 5일(화~토, 40시간), 급여(기관 규정에 따름)
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추계로 62, Acts29 비전빌리지 3층 TIM 사무실
접수: 지원서(본 기관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지원 접수(prmanager@4lovet.com)
기간: 7월 12일(토) 혹은 채용 시까지
문의: 기획동원팀 팀장(070-4464-8102)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큐티지 〈생명의삶〉 편집디자이너 1명
형태 : 계약직 (약 1년 6개월), 주5일 근무
지역 : 서울 서빙고동
기간: 6월 14일까지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무명
無名
6월 25일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제작 CGN 배급 커넥트픽쳐스 내레이션 하정우 12세 이상 관람가
세상의 방법과 다른 선교미디어, CGN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 맞선 다윗처럼, CGN은 '복음', '용서', '사랑'을 들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CGN 20주년 특집 다큐영화 <무명(無名)>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영화 소개
<무명(無名)> 단체 대관 안내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영화와 함께 드리는 특별한 예배'의 시간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관 문의
02-3275-9303~4